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8강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 딤후 2:14-26 -

1.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나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과 샘들이 있어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후 과실을 따 먹었다.

크리스천: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가는 길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목자: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경계(Watchful), 성실(Sincere)인데 순례자들을 이렇게 격려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 떠나셨으면 합니다.

(호 14: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실족’(Error) 봉우리를 소개해준다. 절벽 아래 있는 부서진 뼈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후매내요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실족했던 이들의 뼈입니다”(딤후 2:17-18)

… 또 주의(Caution)의 봉우리를 소개해주었다.

“저 양반들도 여러분들처럼 순례자였지만 도로의 상태가 험해지자 참 길을 버리고 절망거인의 손에 붙들려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2. 무지(Ignorance)를 만나다



무지: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니다. 십일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어요…. 제 신앙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말끔하고 쾌적하며 사시사철 푸르른 길이 우리 마을에서 시작돼서 이 길로 곧장 이어지는데 굳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군요.

(크리스천이 소망을 보며 속삭이며)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네.

(잠 26: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3. 순례자들이 실패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보고 크리스천이 내린 승리의 비결

첫째,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믿음 씨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사망의 골짜기에 서도 기쁘게 다닐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전진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4. 속이는 자(Deceiver)와의 만남

두 갈래 길 중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하던 참에 낮빛이 어두운 남자가 하얀 망토를 두르고 다가와서 왜 여기서 서성이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낯선 사내는 흔쾌히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요” 순례자들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갔다. ... 사나이의 등에서 망토가 흘러내리고 순간 순례자들은 뒷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 꿈쩍없이 간헐 그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책망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놈은 아침쟁이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이지요.”



"Follow me," said the man.

5. 무신론자(Atheist)와의 만남

무려 20년을 이른바 거룩한 성을 찾아 헤맸소. 하지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전진이 없었네. 맥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길을 헤맸던 선배로서 장담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는 어디에도 없소. 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동네를 찾는 답시고 부정하고 살았던 즐거움들을 누리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यो.

크리스천: “저 사람 말이 정말일까요?”

소망: 조심하십시오. 그는 아침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시온 산이 없다고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고후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순례자들은 등을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무신론자 역시 두 사람을 한껏 비웃으며 제 길로 가버렸다. 순례자는 어느 동네에 들어서자 몸놀림이 굼떠지고 저절로 깊은 잠에 빠지곤 했다.

소망: 왜 이렇게 나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아무 데나 누워서 잠시 쉬고 갑시다.

크리스천: 절대 안 될 말일세.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못 일어날 걸세. 목자들 중에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했던 게 기억 나는가? 그건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네

(전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